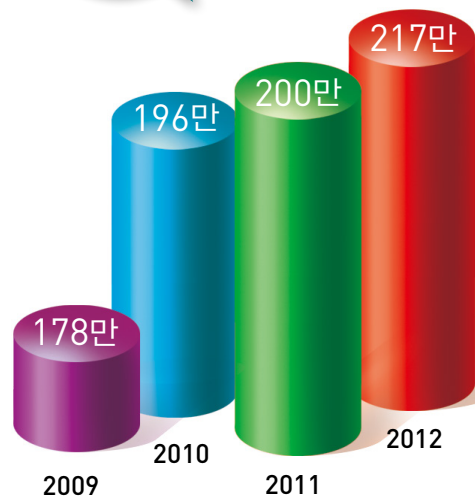


1인당 고기 섭취량 44kg 한국인의 고기사랑은 이어진다! 짬뽕~

*
2009~2012년
한국인 고기섭취
총소비량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섭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선 국내 육류소비량이 2012년 217만 톤까지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쇠고기 48만8000톤, 돼지고기 108만1900톤, 닭고기 60만8000톤 등 모두 217만7900톤의 육류가 소비됐다. 이는 2011년 쇠고기 50만5847톤, 돼지고기 93만7643톤, 닭고기 56만6185톤 보다 7.5%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육류소비량은 2009년 36.83kg에서 2010년 38.74kg으로 뛰었고 2011년에는 40.37kg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kg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고기 소비량도 2009년 178만198톤에서 2010년 196만7244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주요 육류 소비 외에 오리고기 소비 증가추세가 눈에 띈다. 오1인당 오리소비량은 2006년 1.23kg에서 2011년 3.13kg로 6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육류 소비량 증가는 높은 품질의 육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과 외식산업의 발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년 새 의약품 부작용 보고 15만 건 급증

이 약, 진짜 먹어도 될까요?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난 2008년 7,210건에서 2011년 66,395건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 부작용 발생 건수를 보면 2008년 7,210건에서 2009년 26,827건, 2010년 53,854건으로 3년 새에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6,395건, 2012년 상반기까지는 37,544건이 보고되면서 2010년 이후에만 무려 15만 건에 달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같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보고 체계가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례의 급증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작용 보고가 다수 발행하는 약품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및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
2008~2011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